

국내·외 '50인승 소형항공기' 날개 펴다

(주)에어필립, 항공운항 증명서 변경 교부받아 광주-인천 직항노선 지역민 교통불편해소 전망

엄일석 회장 "지역경제 활성화 크게 기여할 것"

에어필립에 자회사인 (주)에어필립(대표이사 엄일석·사진)이 이르면 내년초 '50인승 소형항공기' 취항을 앞두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주)에어필립 항공사의 거점공항으로 광주시나 무안지역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선의 경우 1차적으로 광주-인천, 광주-김해, 2차 광주-제주, 광주-양양, 3차 광주-김포 노선을 준비중이다. 특히 광주-인천 직항항공노선이 없어 불편을 겪어오던 지역민들에게는 크게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필립에어(주)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항공운항증명서(AOC·Air Operator Certificate)를 자회사인 (주)에어필립으로부터 변경 교부받았다.

(주)에어필립은 이르면 올해 말 안에 ERJ-145 2기 도입을 시작으로 매년 2기씩 3년에 걸쳐 총 6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여객수요증가 및 운항지역 확대

가 필요할 경우에는 ERJ-170, ERJ-190 등의 도입도 계획하고 있다. 에어필립(주)이 도입할 항공기 ERJ-145는 브라질 Embraer사가 제작한 것으로 안전성이 입증돼 미국·유럽·중국·일본 등 항공 선진국에서 대표적인 지역 운송용 항공기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주)에어필립은 최초로 ERJ-145기종을 도입하는 것으로서 운항능력 및 안전관리 등 안전운항 체계에 대한 검사를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검증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주)에어필립은 국내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과 노선을 토대로 인천·광주·전남지역을 항공허브로 하는 생활밀착형 항공노선 구축을 야심차게 추진해 왔다.

특히 증가하는 항공여객 수요에 발맞춰 지방도시간 항공 교통망을 구축해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에어필립은 향후 국내선과 국제선으로 나눠 취항할 계획이다. 국내선의 경우 1차적으로 광주-인



전, 광주-김해, 2차 광주-제주, 광주-양양, 3차 광주-김포 노선을 준비중이다. 국제선은 무안-일본나라타 노선을 계획하고 있으며, 중국푸둥에서의 취항요청과 투자지원까지 제안 받은 상태에서 향후 사업확장 가능성은 충분하다.

여기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내국인의 일본관광 및 중국인 국내관광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신규노선 운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처럼 일반항공사업의 불평형을 해소시켜주는 (주)에어필립 소형항공기 사업은 도서지역 수요나 관광객 유치 등 지방승객의 새로운 항공운송 서비스를 제

공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 '50인승 소형항공기'를 운항중인 항공사는 강원 양양 국제공항을 기반

으로 하는 '코리아익스프레스'가 유일하며, (주)에어필립은 두 번째 사업자가 된다.

이외에도 소형항공사로 울산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프라임항공과 경북도와 포항시가 추진하는 에어 포항등이 그 사업을 준비중에 있다.

(주)에어필립 엄일석 대표이사 회장은 "항공여객 수요에 발맞춰 50인승 제트항공기로 국내지방 거점공항 확보를 위해 소형항공기 사업에 과감히 뛰어들게 됐다"면서 "정부의 소형항공기 운항지원 추진에 발맞출 만한 사업자가 부족한 상황을 감안하면 국내 항공발전에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엄 회장은 이어 "항후 국내 소형항공 운송 활성화 및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 만큼,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에어필립은 현재 거점공항으로 인천이나 광주 또는 무안지역에 두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 해당 지역 관계자들이 상당히 고무돼 있는 상태다.

/서미에 기자



"융·복합 통합솔루션 모델로 거듭나야"

양기수 LS산전 부장 주제발표

에너지밸리포럼 '신산업과 사업모델'

에너지밸리포럼(대표 이재훈)은 22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한전, 한전KDN 및 협력사와 에너지 관련기업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신산업과 비즈니스모델'을 주제로 제6회 정례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양기수 LS산전 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자사가 지금까지의 단품 기기 중심 단순 공급자에서 벗어나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통신, 센서 및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 솔루션 사업자로 거듭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부장은 "기술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그리드 및 자동차 솔루션을 확보해 지능형전력망, 신재생 에너지, 제조혁신, 에너지 효율화 수요증가에 따른 신시장의 기회를 선점하고 지속적으로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밖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훈 에너지밸리 포럼 대표 표는 "에너지 생산·유통·저장·소비의 전 과정에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AI(인공지능)·IoT(사물인터넷)·빅데이터(Big data) 등의 융복합화를 통해 에너지시스템의 혁신과 에너지신산업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이 탄

력을 받고 광주전남이 미래에너지산업 선도하는 허브가 되어 국가 미래와 지역의 격차해소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LS산전의 역할과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에너지밸리포럼은 정부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정책에 발맞춰 한전과 광주시, 전남도를 비롯해 협력사 및 대중소기업 등 에너지관련 기업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래 에너지산업 허브'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된 민간 포럼이다.

공기업과 지자체, 기업들이 미래 에너지산업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네트워크 협력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미래 에너지산업에서 새 사업기회를 찾으려 하는 기업들을 위한 정보교류 허브 역할을 하는 비즈니스포럼을 자임하고 있다.

에너지밸리포럼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 로드맵 수립, 원자력 안전규제 강화,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분산형 전원 확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서 "이는 원자력 및 석탄 발전 중심의 에너지체에서 재생에너지 및 분산전원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해 기존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미에 기자

전남진흥원, 가상·증강현실 창작과정 교육생 모집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오창렬, 이하 '진흥원')은 콘텐츠 전문 청년 창작자 양성을 위한 'VR AR 콘텐츠 창작자 양성과정' 무료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용노동부와 전남도, 나주시의 지원으로 지역 내 청년들의 구직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나주 혁신도시 내 콘텐츠 분야 이전기업들의 인력수요에 부합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3D 그래픽, 모델링과 렌더링에서부터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이론 및 콘텐츠 제작, 게임 관련 고객지원서비스(CS)와 제품테스트 및 검수(QA) 등 실제 콘텐츠 관련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과정으로 구성됐다. 총 20명의 교육생을 선발하며, 교육은 오는 다음달 말부터 12월 초까지 나주 혁신도시

한전 앞 지식산업센터와 기업체에서 총 10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ICT워크넷(www.ictwork.net)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나주 혁신도시 내 케이원지식산업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류접수는 내달 15일 마감된다. /고광민 기자



'화목한 남약장터' 할인 행사

농협하나로마트남약점은 올해 연말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동안 농축산물등 30여품목을 정상이 대비 최대 60%까지 할인행사하는 '화목한 남약장터'를 개장한다.

자동차·반도체 수출 호조 '무역수지 흑자'

수출 전년비 10.2% 증가...40억 5천만달러

■ 광주·전남무현, 수출·입 동향 분석

자동차와 반도체·석유제품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광주·전남지역의 무역수지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 무역수지는 13억 4,100만 달러로 지난해 동년 대비 12억 6,400만 달러 보다 7,700만 달러 늘었다. 수출은 10.2% 증가한 40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광주는 2.8% 증가한 13억 2,000만 달러, 전남은 14.1% 늘어난 27억 3,000만 달러다.

수입도 전년 대비 12.3% 늘어난 27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광주가 21.2% 증가한 6억 1,000만 달러, 전남은 10% 늘어난 21억 달러다.

품목별론 광주가 자동차와 반도체·건설·축전지 등에서 수출 호조를 나타냈다. 반면, 냉장고·고무제품·금형 등에선 하강곡선을 그렸다.

자동차는 대미 수출 부진에도 친환경·대형차와 기타지역 수출 호조로 소폭 증가했다. 수출액은 5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고광민 기자

반도체는 중국과 필리핀·대만·베트남에서 큰 폭으로 늘어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해 4억 1,000만 달러가 늘었다.

그러나, 냉장고는 전년비 17.9%, 고무제품은 0.5% 각각 감소했다.

전남지역은 석유제품·합성수지·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철강관·기타석유화학제품·기초분유 등 대부분 주요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석유는 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 지속으로 전년비 15.6% 늘었다.

합성수지는 설비 증설로 생산능력 확대 및 수출단가 호조로 7개월 연속 두자릿수 상승곡선을 그리며 11.9%를 기록했다.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과 철강관은 21.9%, 1.4% 각각 증가했다.

/고광민 기자

중소벤처부, 광주국제식품전 업체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소기업)가 광주국제식품전 참가 업체를 모집한다.

22일 중소기업부에 따르면 광주시가 주최하는 '2017 광주국제식품전'에 농

공상융합형중소기업관을 설치,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국제식품전은 11월 23일~26일까지 4일 동안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에선 해외바이어를 초청한

수출상담회 등이 개최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오는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참가업체는 부스 임차비와 장치비 등이 지원된다. /고광민 기자

당신의 숨은 스코어를 찾아주는 특히 골프공 엑스페론

골프공에 숨어있는 단 하나의 회전라인 무게중심, 회전라인을 찾아 특허받은 골프공

엑스페론골프공은 공의 뒤틀려진 무게중심과 회전라인을 얼리먼트한 특별한 골프공입니다.

Xperon 골프공의 특징

- 강한내구성, 저경도 고반발의 경화형 우레탄커버 적용
- 더욱 길어진 비거리
- 모든 샷에 최적화된 탄도와 Roll Distance
- 순쉬운 샷 게임을 위한 최상의 스핀 컨트롤
- 모든 헤드스피드에서도 최상의 비거리를 발휘하는 더욱 부드러운 타구감

© 골프공 회전 안내라인 자동화 형성 시스템
© 골프공 무게중심 자동화 마킹 시스템

www.xperon.co.kr 02-2070-5009 xperongolf@daum.net